



16면

'전북 익산형 일자리' 밀그룹 완성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음 10월 11일) 제31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창업펀드 성공가도 달린다

반도체 소부장기업 제이아이테크, 오늘 코스닥 상장 고용 250%↑ · 매출 443%↑ ... 눈부신 성과 달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의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이하 탄소성장펀드)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며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4일 지난 2018년 탄소성장펀드 지원을 받은 전자재료 소재기업 (주)제이아이테크가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 7월 상장한 성일하이텍(주)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탄소성장펀드는 비수도권의 지방기업 투자자 주목적인 투자펀드다. 지난 2018년 전북도와 효성그룹, SI투자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출자해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전북도 최초의 창업·벤처펀드다.

현재까지 지역 전략특화 산업분야 18개 기업에 184억5,000만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의료·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CT)플랫폼 등 산업분야를 확장해 등 도내 12개사에 120억 원을 투자했고, 속속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주)제이아이테크가 고속 성장한 이면에 전북도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

합석현 대표는 2012~2014년까지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며, 견고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했다. 2014년에는 법인을 설립해 원광대 창업선도대학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등 지역에서 탄성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성공 이력을 보유했다.

이후 2018년도에 탄소성장펀드의 운용사인 SI투자파트너스가 제이아이테크의 투자 가치를 발견하고, 10억 원을 투자했다.

전북도는 2018년 제이아이테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위기지역으로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적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제이아이테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Low-K(저유전체) 프리커서' 부문은 국내 최대 양산 생산량(CAPA)을 갖췄고,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삼

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반도체 소재 분야의 국내 기관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더불어 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케이스 OLED 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도 함께 다루며 신규 소재 개발에 집중, 소재 분야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이아이테크의 최대 강점은 높은 수익이 높은 제조기업이라는 점이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흑자를 냈으며, 최근 3년간 22.8%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등 마진율이 높다.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제이아이테크가 보유한 기술이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4일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높은 수익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 가치가 1,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투자자 상장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65.77%가 공모가 최상단으로 가격이 제시됐다. 실제 공모가 역시 최상단인 1만6,000원으로 확정되며, 성공적 IPO(기업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새만금산업단지 제3공정(특수가스 제조) 건립 등 생산시설 확장에 전액 활용될 예정이다. 조달자본 277억원 중 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금 259억 원이 시설 투자로 활용된다.

그간에도 제이아이테크는 투자시점 대비 매출액(2021년 말 기준)이 250%, 고용은 443% 성장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성공 사례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투자자 여러분의 내일을 바랄 우량 투자처가 머지 않은 곳에 있으니, 전북의 기업을 눈여겨 봐달라"며, "지난 7년동안 2,104억원의 펀드를 조성했지만, 내년 한 해 동안에만 1,640억 원의 전북도 출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을 청년이 머무르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국내 11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서 발전 방향 모색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대한민국 11개 도시가 3일과 4일 이틀간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전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첫날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2022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정회원도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를 비롯

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회원도시 워크숍 개최 상호 협력방안 논의

해 서울 이천, 광주, 부산, 통영, 대구, 부천, 원주, 대구, 지난해 공예·민속 예술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을 받은 경남 김해시 등 국내 11개 창의도시 관

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11개 정회원도시들은 상호 협력 증진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박세훈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성과지표 개발 연구 결과 발표로 문을 연 워크숍에서는 한건수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의 '한국 유

네스코 창의도시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각 창의도시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도시별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전체토론도 진행됐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은 워크숍 둘째 날인 4일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지역 창의인프라를 함께 둘러보는 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도시 간 네트워크로, 음식과 문학,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등 7개 분야에서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 창의도시네트워크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현재 세계 93개국 25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창의도시들과 여러 전문가,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민의 발돋움에 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3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2022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정회원도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우범기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최초 전라도 역사 망라

호남권 3광역지자체 협동 2018년부터 추진 전라도 역사 담은 육고 출판... 25일 봉정식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오는 25일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협동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전라도 오천년의 역사를 담은 육고(肉考)를 출판하고 봉정식(奉呈式)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되는 전라도 천년사는 당초 전라도 정명 천년(2018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 현종 9년(1018년)부터 현대(2018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18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고 전라간영이 있었던 전북(전북연구원)에서 주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전라도 지역의 모든 분야별 역사를 망라해 기술하는 전무후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



전라도 천년사 표지 중 4권 마름마사지 석탑 디자인 이미지 (사진=전북연구원 제공)

현종 이전의 전라도 역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편찬 범위를 확대해 전라도 오천년 역사를 편찬하기로 2019년 호남권정책협의회 안건으로 결정했다.

집필진도 112명에서 213명으로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예산도 24억원으로 증액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34권으로 총

서(해설서) 1권과 전라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6개 시기별 통사 29권 그리고 전라도 도백 인명사전 등 자료집 4권으로 구성됐다. 천년사의 각 권은 전국에서 망라된 분야별 최고 전문가 213명이 초고를 기술했는데 초고 완성을 위해 200명의 연구원이 자료조사에 투입됐다.

이렇게 기술된 총 4만7,740매의 방대한 초고를 총29명의 감수위원이 1차 교정했고, 이를 21명의 편찬위원이 일일이 2차로 검수했다. 출판이 진행되는 동안 6명의 전문가가 윤문을 진행했고 총 50명의 인원이 출판교열에 참여하는 등 총 투입인원 600여 명과 34권 2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역사가 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다. 이는 편찬사에 참여한 인원 규모와 결과만으로도 전국 최대라 할 수 있다. 이번 편찬되는 전라도 천년사는

타지역의 편찬 역사서와 달리 전라도 오천년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했다는 특징과 함께 근·현대 격동의 한국사를 함포사와 연계해 세세하게 조명 한 것으로 그 가치가 더욱 깊다고 평가되고 있다.

25일 개최되는 봉정식에는 처음 전라도 천년사를 기획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아낙연 전 국무총리, 이용섭 전 광주시장 등의 축사가 더해질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편찬된 전라도 천년사를 지역별 편찬위원회 자취부가 현재 3광역 지자체 도백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기획해 학계와 편의 '협업' 사업 의미를 더욱 살릴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